



구수한 조선민담

박병대 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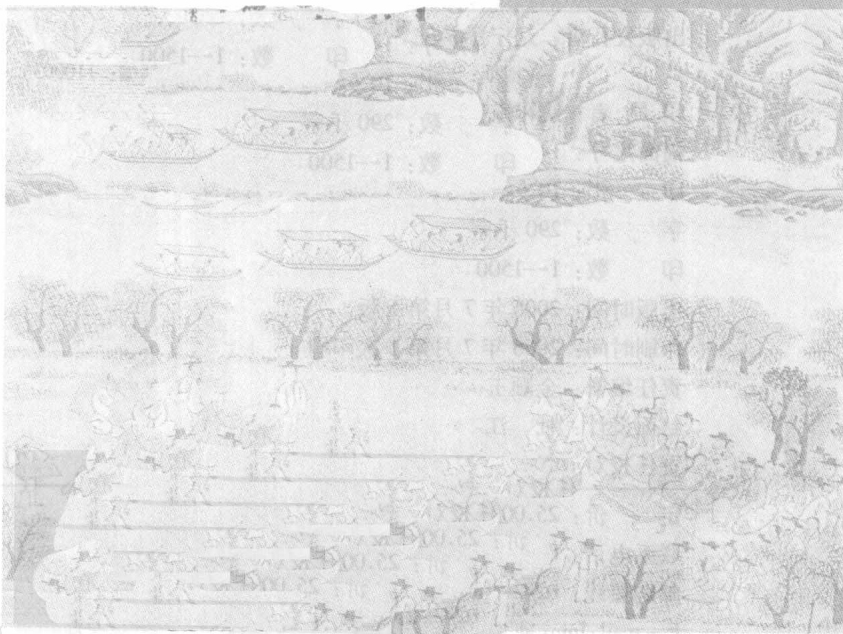


녕민족출판사



구수한 조선민담

박병대 엮음



경남민족출판사

© 朴炳大 2006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朝鲜民间传奇故事/朴炳大编著. — 沈阳: 辽宁民族出版社, 2006. 7

ISBN 7 - 80722 - 233 - 6

I. 朝… II. 朴… III. 朝鲜族—民间故事—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77. 3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6) 第 078474 号

出版发行者: 辽宁民族出版社

(地址: 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 25 号 邮编: 110003)

印刷者: 沈阳航空发动机研究所印刷厂

幅面尺寸: 145mm × 210mm

印 张: 10 5/8

字 数: 290 千字

印 数: 1—1500

出版时间: 2006 年 7 月第 1 版

印刷时间: 2006 年 7 月第 1 次印刷

责任编辑: 金顺玉

封面设计: 杜 江

责任校对: 赵 玉

定 价: 25.00 元

联系电话: 024—23284348

邮购热线: 024—23284335

E - mail: lnmz @ mail. lnpcc. com. cn

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承印厂调换。

머 리 말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슬기와 근면으로 찬란한 동방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드넓은 흥금, 후더운 인품, 강직한 품성과 밝은 예절, 정직한 태도로 참다운 삶의 교향악을 울리셨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그분들이 겪어온 감동적인 이야기는 입에서 입을 거쳐 세세대대 전해지면서 후손들의 인생행로를 가리켜주는 길잡이로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민담을 즐겨들어온 저는 조상들의 값진 삶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어갔고 그분들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 세대와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주고싶은 강한 충동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민담을 수집한다는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만 저에게는 남들보다 우월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부친(휘:박기동 1919—1995)이 훌륭한 민담구술가였기때문입니다. 비록 학교문턱도 넘어보지 못하셨지만 자학으로 고문을 익히고 명사들을 찾아 배우기를 즐기신 선고께서는 수많은 민담을 수집하셨었고 또 그것을 민간에 전해주셨습니다. 약이 결핍하던 20세기 70년대에 부친께서는 민간료법으로 마을사람들의 치질, 연주창, 백내장과 각종 소아병을 잘 치료하여 그 소문이 멀리 길림, 흑룡강까지 퍼져서 부친을 모시러 오는 환자들때문에 일년에 절반 이상의 시간을 외지에서 보내셔야 했습니다. 선고께서는 낮에는 환자들의 병을 무상으로 치료해주고 저녁이면 민담을 들려주셔서 동포들에게 즐거

움을 선사하는 한편 민족의 얼을 키워주셨습니다.

20세기 70년대초에 시가창작으로 문단에 발을 들여놓았던 저는 부친의 년세가 높아지는것을 보고 등한시하다가는 우리 민족의 정신재부를 잃어버릴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민담과 민가를 수집정리하는데 정력을 기울였습니다. 《장백산》(1983.3~4)에 실린 《리한림의 혼사》가 민담으로서의 처녀작이었습니다. 새로운 민담을 수집정리한다는것은 날로 간고해지는 일이지만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많은것을 깨달을수 있었기에 무척 즐거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민간문학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에 여생을 다 하려고 합니다.

60고개를 넘기고나서 이 책을 내게 되니 실로 감개무량합니다. 내가 좀 일찍 민담수집에 나섰더라면 적은 품을 들고 많은 글감을 얻었겠는데 한발 늦은것이 후회되기도 하고 선고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보잘것없는 이 책이 우리 민족의 얼을 지켜가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이상 더 큰 기쁨은 없을것입니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물심량면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료녕민족출판사, 문우, 제자, 동료,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독자들께서 미숙한 글이지만 아껴주시고 많은 지도와 비평을 바랍니다.

박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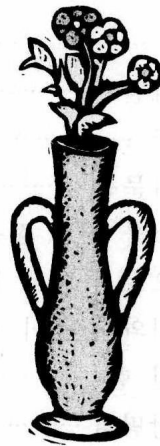
2006년 5월

차례

욕심쟁이사돈을 길들인 이야기	1
부랑자를 길들인 로정승	7
과부며느리를 개가시킨 이야기	10
지혜있는 녀인	20
리한림의 혼사	37
은인	58
어진 안해	76
포도장군 리원	103
무인 리주국	112
무식판서 리문원	129
임금의 급소를 찌른 젊은 신하	147
넓은 도랑으로 움덕을 쌓다	152
멋진 글풀이와 꿈풀이	158
금쥐에 서린 한	161
명의우의 상명의	166
상변군의 장기내기	173
황희정승	179
맹사성 일화	191

구수한 조선민담

파경노(破鏡奴)	209
홍동역의 청병사	223
기이한 보은	234
암행어사 박문수	240



욕심쟁이사돈을 길들인 이야기

임진왜란때 특이한 공을 세우고 정승직에 올라 국사에 진력하던 서애대감 류성룡은 일흔고개를 바라보자 벼슬을 내놓고 고향인 안동 하외에 낙향하여 낚시질로 여생을 보내고있었다. 그때 류정승댁에는 방년이 된 막내딸이 있었는데 워낙 귀염등이로 자랐기에 다른 딸에들처럼 큰 가문의 맏며느리감이 되지 못한다고 아무데건 등 따스하고 배 부른데 출가시키면 된다 여겨 경주 갑부 리진사댁에 작은 며느리로 시집을 보내였다.

1

서애대감이 신행가마를 따라 새사돈댁에 상객으로 갔더니 돈과 재물밖에 모르는 리진사는 신부가 가져온 혼물이 보잘것없다고 상을 찡그리며 큰상도 정성껏 차려주지 않았다.

(십칠팔년동안 고이 키운 딸을 쌍놈중에서도 둘쌍놈한테 빼앗겼구나!)

류정승은 중매군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서빨리 허혼한것이 후회막십이었으나 이미 쏟아놓은 물이 되고 쭈어놓은 죽이 되어 어찌는 수가 없었다. 기분없이 집에 돌아온 그는 딸 하나 잃어버린셈하고 5~6년이 지나도록 작은 딸네 집에 발길을 끊고 봉물도 한번 보내지 않았다.

욕심꾸러기 리진사는 혼물을 많이 가져오고 또 해마다 친정에서 봉물을 가져오는 서울 큰며느리와 밀양 둘째며느리한테는

끔찍하게 굴면서도 막내며느리는 혈뜯고 구박하기가 일쑤였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에 있던 정승택의 규수로 호의호식하며 고이고이 자라났는데 시집이라고 와서부터 갖은 멸시와 천대를 하루 세끼 밥먹듯 받아온 리진사의 막내며느리는 참을래야 더는 참을수가 없어서 친정에 만리장서를 써서 보내면서 부모님께서 이미 내버린 딸자식이지만 한번만 보러 와달라고 애원하였다.

눈물자욱에 얼룩진 딸애의 편지를 받아본 류정승은 오장륙부가 다 찢어지는것만 같았다. 그는 즉시 룩사 한명을 데리고 딸네 집으로 가려고 나귀등에 올랐다. 3백리나 되는 험한 산길을 빠져 나오느라 땀별창이 된 류정승이 사돈택에 찾아오니 무지막지한 리진사는 벼슬없이 가난하게 지내는 사돈을 여지없이 깔보고 길가던 나그네를 대하듯이 소반상우에 풋나물반찬만 몇가지 올려놓았다. 상객으로 왔다가 돌아간 뒤 5~6년만에 처음 찾아온 사돈을 사람 낮가죽을 쓰고 어이 이리도 박대할수 있는가고 생각하니 생각하면 할수록 패씹하기 그지없었으나 어디에다 분풀이를 할데도 없는 처지라 그는 사랑방에 앉아서 헛기침만 깊으며 가까스로 분을 삭이였다. 밤이 이슬하여 따님이 사랑방에 들어와서 이부자리를 펴 올리자 류정승은

《네가 하도 와달라고 사정하기에 원로에 찾아왔다가 쌍놈한테 괘시만 톡톡히 받았구나. 딸네 집에 모처럼 왔다가 하루밤만 류하고 돌아가기는 박정하나 래일은 떠나가야 되겠다. 그래 너는 무슨 청이 있는지 속씨원히 말하려무나.》

하고 말하면서 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버님, 소녀는 시가집 사람들의 못된 버릇을 고쳐달라고 아버님을 부르셨사와요. 래일은 이 집에 손님이 많이 온다는데 아버님께서 하루 더 류하시면서 훈계를 좀 해주세요.》

눈물범벅이 된 막내딸의 얼굴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생긴 류정승은 딸의 청에 쾌히 응낙하였다.

이튿날 류정승이 아침상을 물리고 정원에 나와서 산보를 하다가 돌아오는데 웬 젊은이가 호마를 타고 대문앞에 달려오더니 주인을 찾아 절을 올리고나서

《진사님, 오래잖아 서울손님이 당도하게 되었나이다.》

하고 아뢰는것이였다.

《서울에서 웬 손님이 오시오?》

결에서 듣고있던 류정승이 리진사앞에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더니 리진사는

《우리 큰 자부의 오빠되는 분이 령남순무사로 내려오면서 지나가는 길에 제 누이동생을 보러 온다오.》

하고 말하면서 어깨를 으쓱하였다.

류정승이 사랑방에 돌아와서 쉬고있는데 리진사가 찾아왔다.

《여보 사돈, 미안하게 되었수다.》

《아니 사돈께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서울에서 젊은 손님들이 여럿이 오게 되어 사랑방을 비워야 되겠소이다. 사돈은 몸도 불편하실텐데 협실에 가서 오늘 하루 쉬도록 하시오.》

류정승이 그 말을 듣고나니 슬그머니 노염이 솟아올랐다. 아직 대가리에 소똥도 채 벗지 못한 젊은것들을 모시겠다고 칠십고령에 오른 사돈이 들어있는 사랑방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도 고양이 쥐 생각하듯 발라맞추는 리진사의 소행이 아니꼽기 짝이 없었다.

《늙은 나는 아무데건 조용한 곳이면 되니 좋도록 하시오.》

류정승이 리진사가 나간 뒤 사랑방의 벽에 기대고 앉아있노라니 밖에서는 소를 잡는다 생선을 사온다 야단이였다. 이윽고 협실로 쫓겨와서 죄인같이 쪼그리고 앉아있던 류정승은 권세와 돈에만 눈이 어둡고 가난한 사돈은 개발싸개로 아는 리진사의 소행이 역겨워났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류정승은 룩사를 가만히 험실로 불렀다.

《거기 룩사가 있느냐?》

《예이, 대감님, 룩사 대령했나이다.》

《서울에서 순무사가 온다는 말은 들었느냐?》

《예, 들었소이다.》

《그자들이 오거든 가마에서 내려 부복하도록 하거라.》

《예이.》

석양무렵이 되자 나팔소리, 북소리, 징소리가 산천초목을 진동하였다. 순무사일행이 리진사택을 찾아온다는 소문을 들은 동네사람들이 동구밖으로 달려나와 구경군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리진사택에서는 마당에 차일을 치고 모전을 펴느라 여념이 없는데 순무사일행은 어느새 대문앞에 이르렀다.

《서애대감께서 좌정하셨다!》

4 산천초목도 벌벌 떨게 하는 룩사의 함성에 놀란 순무사는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가마에서 내리기 바쁘게 대문밖에서 땅에 꿇어앉은채 연신 머리를 쪼았다. 그렇게도 위무당당하던 순무사가 어이하여 갑자기 호랑이앞에 선 개처럼 벌벌 떨고있는지 영문을 모르는 구경군들은 혀를 내밀며 서로서로 눈길을 마주쳤다.

《서애대감님께 소인의 문안을 전해주옵소서.》

절을 열두번도 더 하고난 순무사가 제 정신이 돌아오자 룩사를 보고 사정을 했으나 룩사는 그의 말을 듣는등마는등 하고 먼산만 바라보고있었다.

퇴조하고 락향한 대감의 권세가 저렇게도 큰가? 리진사택 사람들은 순무사만 대단한줄 알았지 늙은 사돈의 위엄이 이렇게 대단한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들은 저마다 울상이 되어가지고 류정승의 따님을 찾아가서 제발제발 용서를 빌었다. 그들은 순무사를 대접하려고 차린 산해진미 큰상을 들고 험실앞에 찾

아와서 서애대감을 불렀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번이나 불렀어도 집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모두들 당황하여 어쩔줄을 모르고있을 때 류정승의 막내딸이 찾아와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고 물었다. 이때 류정승이 따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서 큰 기침을 하고나서 밖에 대고 큰소리로 물었다.

〈거. 밖에 누가 있느냐?〉

〈불초소녀이옵니다. 대감님께서 시장하실가봐 주안상을 차려왔나이다.〉

〈음, 가지고 들어오너라.〉

류정승은 딸이 들고온 주안상을 앞에 두고 딸이 부어주는 약주를 달게 마시고있었지만 대문밖에 있는 순무사일행은 땅에 꿇어앉은채 감히 일어나지 못하고있었다.

따님이 내실로 들어간 뒤 룩사가 들어와서

〈대감님, 밖에서 순무사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 대감님께 문안을 올린다고 하옵나이다.〉

하고 알려주었다.

〈이젠 그만 퇴령하라고 알려라.〉

류정승의 령을 받은 룩사가 대문밖에 나와서

〈대감님께서 퇴령하라신다!〉 하고 소리높이 웨치니 짝소리도 내지 못하고 물러난 순무사는 가마에 감히 오르지 못하고 꼬리뺨뺨하여 달아나고말았다.

이윽고 리진사가 험실에 찾아왔다.

〈대감님을 험실에 모셔서 실로 죄송하나이다. 어서 사랑방으로 옮겨가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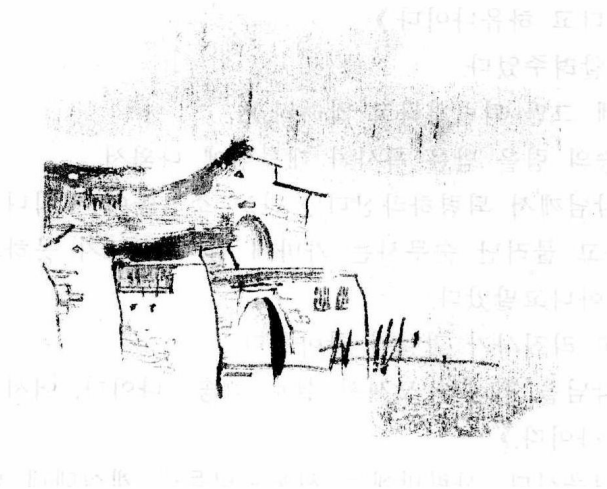
〈아니올시다. 사랑방에는 서울손님들이 계실텐데 내가 어찌 그 방에 들어갈수 있겠소?〉

태연스럽게 대답하는 류정승의 말에 량심의 가책을 받은 리진사는 낮이 수수떡같이 상기되어 감히 머리도 들지 못하였다.

《방금 대감님께서 퇴령하라 하시고로 모두다 물러갔소이다. 무지한 소인은 이때까지 하늘이 얼마나 높고 땅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랐소이다. 용서해주옵소서.》

《천만의 말씀이요. 오래간만에 사돈끼리 만나 웃고 놀자고 자그마한 룡을 했는데 젊은 손님들이 달아나기까지 하다니 정말 안됐구려.》

두 사돈은 술잔을 마주들고 꺄꺄 웃었다. 그리하여 리진사는 순무사를 대접하려던 소고기와 생선으로 서애대감을 극진하게 대접하였다. 이번 일이 있는 뒤 리진사는 자기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교만한 태도를 고쳤으며 막내며느리를 큰며느리나 들째며느리 못지않게 후대하였다.



부랑자를 길들인 로정승

임진왜란때 특이한 공을 세우고 정승직에 올라 국사에 진력하여 명상이라 이름을 떨친 서애 류성룡은 춘추가 일흔고개를 바라보게 되자 관직을 내놓고 고향에 돌아와 한가히 만년을 보내었다. 현 샷갓을 쓰고 무명두루마기를 걸치고 내가에 앉아서 낚시질을 일삼는 그는 낯선 사람이 보면 흡사 농가의 로옹같았다.

어느날 로정승이 내가에서 잉어 한마리를 낚아올리고있는데 갑자기 등뒤에서

《여봐라, 거기 낚시질하는 령감태기 당장 이리 오너라. 배좌수댁 공자님께서 월천하시려는데 어서 업어 건너지라!》

하는 소리가 났다. 로정승이 고개를 들고 돌아보니 의복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새 파란 젊은이가 호통을 치고있었다.

(세상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놈도 있는가?) 로정승은 당장에 그놈의 눈에 번개가 일게 따귀를 쳐주고싶었으나 치솟는 울화를 가까스로 눌렀다.

《예—이, 이제 곧 대령하겠나이다.》

류정승은 낚시대를 내가에 두고 젊은이의 앞으로 걸어난 뒤 다리를 뚱뚱 걷고나서 그의 앞에 등을 내밀었다.

배좌수의 아들이 녀적 업히자 서애대감은 내복판으로 침병침병 걸어들어갔다.

《업혀다니는게 말타기보다 재미있는걸. 하하하. 어서 빨리빨리 걸어라!》

배좌수의 아들은 너털웃음을 웃다가는 호통을 쳐댔다. 의기양양해난 그놈이 로정승의 목과 등을 북처럼 두드리다가 손에 삿갓이 걸려 반쯤이나 벗겨졌는데 삿갓밑 이마에 번쩍거리는 금대가 눈에 띄었다.

《앗!》

외마디소리를 지른 그는 로정승의 등에서 사시같이 떨어졌다. 조정의 대신들도 옥대밖에 띠지 못하는데 불품없는 이 령감은 금대를 띠었으니 판서보다도 직위가 높은 정승인것은 너무나도 뻘한 일이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에 있는 정승을 강박하여 그 등에 업혔으니 호랑이등에 오른 토끼의 처지나 다름없었다.

《대감님, 소인은 죽을 죄를 졌소이다. 내려놓아주십시오.》

《자네는 옷을 입었고 나는 이미 다리를 걷고 물에 들어선터인데 이제 물에 내린다는게 될 말이나? 강을 건넌 뒤에 다시 보자.》

사십성상을 벼슬살이로, 열춘추를 응마생활로 보내온 류정승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힘은 아직도 장사였다. 그가 등에 업혀서 내리려고 벼둥거리는 그놈의 다리를 꼭 끼자 부랑자놈은 뼈가 부서지는것 같이 아팠지만 찌소리 한마디도 감히 내지 못하였다. 시내를 건넌 류정승이 부랑자놈을 강가에 내려놓자 낮빛이 백지장같이 된 그놈은 땅바닥에 엎디어 머리를 쪼아리면서 제발제발 용서를 빌었다.

《소인은 죽을 죄를 졌소이다. 소인이 태산을 몰라보고 저지른 죄는 만사무석시오나 대감님께서 하해같은 도량으로 한번만 용서해주옵소서.》

《자네는 몸이 불편해서 업어달라고 했겠는데 그게 무슨 죄라고 할수 있느냐? 하물며 백성이 대감한테 업히면 안된다는 국

법도 없지 않느냐?》

《아니올시다. 소인은 기실 아무런 병도 없사오나 눈이 멀어서 대감님을 몰라보고 망발을 했나이다...》

《네 이놈, 나는 네놈이 나를 몰라본걸 나무라지 않는다. 건방지기 짝이 없는 네놈은 제 애비의 등을 대고 수염이 제 머리보다 긴 늙은이한테까지 불손한 언사를 쓰고 행패를 부렸으니 네놈은 비록 인피는 썼으나 금수와 다르게 무엇이냐?》

로정승의 눈에서 서리발이 일자 부랑자놈은 이제 날벼락을 맞게 되었구나 하고 머리를 땅에 박은채 하회만 기다렸다.

《네놈의 소행을 봐선 엄형증벌을 내려도 무방하지만 너는 아직 청춘이 만리갈기에 이번만은 특별히 용서해주노라. 이 다음 네가 또 상하를 몰라보고 백성을 못살게 굴었다는 소문이 내 귀에 들리는 날이면 네놈은 물론이고 자식을 개돼지로 만들어놓은 네 애비까지 파관투옥을 당하게 된다는것을 명심하여라.》

로정승의 질책을 받고 얼이 빠진 부랑자놈은 줄똥을 싸면서 꼬리 짹짹 도망을 쳤는데 논판에 세워놓은 허수아비를 보고도 로인으로 알고 이마가 벗어지도록 머리를 쪼아렸다 한다.

과부며느리를 개가시킨 이야기

옛날 한 시골에 리진사라는 점잖은 랑반이 살았다. 그에게는 마흔고개를 넘어 천행으로 본 귀동자가 있었는데 아들 나이 18세가 되자 리진사는 꽃같이 어여쁘고 비단같이 맘씨 고운 규수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외동아들의 혼례를 치렀으니 만사필이려니 했는데 조물주가 심술을 부렸는지 잔치후 사흘만에 신랑이 이름 모를 급살병에 걸려 황천객이 되었으니 진사내외는 하늘 땅이 빙빙 돌고 눈앞이 캄캄하였다. 그렇다고 신행와서 아직 처녀티도 채 벗지 못한 며느리앞에서 대성통곡할수도 없는 처지라 그들 랑주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땅이 꺼지게 한숨만 쉬었다. 며느리 또한 무던한 녀인이라 마음같아서는 《애고 서방님, 서방님 없이 나는 어찌라오!》하고 가슴을 치며 맨발바람으로 북망산까지 따라가고싶었지만 백발이 성성한 시부모님을 생각하여 억수로 쏟아지는 눈물로 열두폭 치마자락을 적시며 소리없이 구곡간장을 태웠다.

날이 가고 달이 바뀌는데 싸늘한 신방에서 말동무 하나 없이 주야장천 그림자만 동반해 지내자니 애절심사야 그 무엇에 비기랴만은 이게 다 팔자소관인데 울면 무엇하고 탄식하면 무엇하랴 하고 일일삼찬 음식을 짓고 억지 웃음으로 어른들을 맞아주었다. 그런데 며느리의 효성이 지극하면 지극할수록 리진사의 가슴은 더욱 더 아파났다. 앞길이 구만리같은 며느리가 우리 랑주때문에